

해원상생의 새로운 이해

崔 東 熙 *

目 次

- I. 해원상생의 일반적인 말뜻
 - 1. 해원의 일반적인 말뜻
 - 2. 상생의 일반적인 말뜻
- II. 해원상생의 윤리적·종교적인 의미

I. 해원 상생의 일반적인 말뜻

1. 해원의 일반적인 말뜻

해원(解冤)이라는 말은 ‘원을 푼다’는 뜻이다. 이때의 ‘원’은 원통¹⁾ 또는 원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원통과 원한은 거의 같은 뜻으로 통한다.

이렇게 원통에는 대체로 (1) 소중한게 여기는 것을 잃었을 때의 마음 아픔과 원망스러움, (2) 죄없이 화를 입어서 마음 답답하고 분함이라는 두 갈래의 뜻이 들어 있다. 이렇게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의 괴로움과 내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겪는 괴로움이 일단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내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 고대 명예교수, 철학박사

1) 원통(冤痛) :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까운 물건을 잃거나 죄없이 화를 입어서 마음이 몹시 아프고 원망스러움. (한글학회 지음, 『새한글사전』 홍자출판사, 1978)

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곧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이것이 내 잘못이나 아니냐가 문제될 뿐이다.

이와 같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대체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곧 이 어려움을 내 잘못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 탓이라고 할 때 마음이 아프고 남의 탓이라고 할 때 원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곧 욕구불만(欲求不滿)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프거나 원망스럽게 된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흔히 원통(冤痛) 또는 원한(怨恨)이라고 한다. 원통은 마음이 아프다는 쪽이 더 강하고 원한은 원망스럽다는 쪽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은 말로 쓰인다. 이들과 같은 뜻으로 쓰는 말로 ‘분하다’(憤하다)²⁾는 말이 있다.

이와같이 분하다고 할 때의 분(憤)이 원통이나 원한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원통함을 푼다’, ‘원한을 푼다’, ‘분풀이한다’는 말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된다. 이 말들을 나타내는 한자말이 곧 ‘해원’(解冤)이다.

해원이라는 말은 ‘원(冤)을 푼다(解)’는 말이므로 이 원(冤)이라는 말이 결국 원통하다·원한스럽다·분하다는 말들의 뿌리인 셈이다. 그런데 이 원(冤)이라는 글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인 한글과는 매우 다른 ‘뜻을 나타내는 글자’(表音文字)인 한자다. 그러므로 원이라는 한자가 나타내는 뜻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冤)은 구부린다(屈也)는 뜻이다. 덮개(冪)와 토끼(兔)로 이루어진 글자다. 토끼가 덮개 밑에 있어서 달릴 수 없다. 그래서 더욱 더 구부리고 오그리게 된다.³⁾

이렇게 원이라는 한자는 덮개 밑에 토끼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다.

2) 분하다: (1)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에 원통하다. (까닭 모를 비난에 그는 분하기 그지 없었다.) (2) 될 듯한 일이 되지 않아 섭섭하고 아깝다. (다 이긴 바둑을 아차 실수로 졌으니 분할 수 밖에) (한글학회 지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4)

3) 許慎, 『說文解字』, 十卷上

그러므로 그 뜻은 토끼가 덮개(이를테면 그물) 밑에 갇혀서 달릴 수 없음을 나타낸다. 토끼가 마음껏 달리고 싶은 데 덮개 밑에 갇혀서 달릴 수 없으므로 토끼는 더욱 더 몸을 구부리고 오그리게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게 느낀다는 것을 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마음을 토끼의 잔뜩 움추린 가엾은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토끼의 어떤 모습을 그려내서 사람의 마음 상태인 '원통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데 한자의 어려움이 있다. 또 어찌 꼭 토끼가 달릴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려내어 사람의 원통한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였는지 오늘의 우리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다.

어쨌든 토끼는 본디 잘 달린다. 풀이나 나무 사이를 마치 나는 듯이 뛰어가는 토끼의 날씬한 몸매는 옛 중국사람에게 크나 큰 감동을 줄 만도 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달린다는 글자(走)와 토끼라는 글자(兔)로 된 글자(逸)를 달린다·달아난다·즐긴다·편안하다 등의 뜻으로 쓰게 되었다.

逸은 달아난다(走也)는 뜻이다. 달린다(走)와 토끼(兔)로 이루어진 글자다.⁴⁾

이렇게 옛 중국사람들은 토끼라는 짐승은 달릴 때·달아날 때 정말 즐긴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본디 달리기를 즐기는 토끼가 달릴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 아프고 원망스러움' 곧 원(冤痛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을 푸는 것이 곧 해원이다.

이제 해원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말뜻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원통하다·원한스럽다·분하다는 말들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이들에 공통적인 원인은 사람에게 마땅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곧 욕구불만이다. 옛 중국사람은 이것을 마음껏 달리고 싶은 토끼가 달릴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려내서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욕구불만에 따르는 것(결과)이 바로 마음 고통인데 그 하나가 마음 아픔이고 다른 하나가 원망스러움이다. 이와 같이 욕구불만으로 말미암은 마음 고통이 바로 '원'(冤)이고 이것을 풀어서 없애는 것(解)이 곧 '해원'이다. 이러한 해원은 그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

4) 許慎, 『說文解字』, 十卷上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욕구불만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아픔을 남이 풀어주는 해원
2. 욕구불만으로 말미암은 원망을 남이 풀어주는 해원
3. 욕구불만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풀어버리는 해원
4. 욕구불만으로 말미암은 원망을 스스로 풀어버리는 해원

2. 상생의 일반적인 말뜻

여기서 말하는 상생(相生)은 ‘해원 상생’이라고 할 때의 상생이다. 그러므로 이 상생은 해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그 의미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해원 상생’이라고 할 때 해원이라는 말과 상생이라는 말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느냐를 먼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관계는 일종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해원 상생’은 해원이 원인(또는 조건)이 되고 상생이 그 결과(또는 성과)라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곧 ‘해원하여 상생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원을 풀어서 상생한다’고 할 때의 상생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때의 상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일 것이다. 그 하나는 ‘서로 살려 준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살아 간다’는 뜻이다.

너희들은 손에 ‘살릴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得意)의 추(秋)가 아니냐.
삼천(三遷)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⁵⁾

여기서 “손에 살릴생자(生)를 쥐고 다니니 뜻을 얻은 때가 아니냐!”라고 외친다. 여기서 말하는 살릴생자가 바로 ‘해원 상생’의 마지막 글자인 ‘생’(生)을 말한다. 따라서 그 살릴생자는 곧 해원상생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저 ‘상생’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손에 살릴생자(生)를 쥐고 다닌다”는 것은 해원 상생의 가르침을 늘 생활화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생이라

5) 『大巡典經』 5판, 1960, 제6장 30

고 할 때의 생(生)이 ‘살린다’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원상생이라고 할 때의 상생은 “서로 살린다”는 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다시 분석하면 상생의 뜻은 두 가지로 된다. 그 하나가 ‘서로 살려준다’는 뜻이다. 서로 남을 살려주는 타율의 단계를 넘어서 서로 자기를 살려나가는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서로 남을 살려주는 것은 남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생의 다른 하나의 뜻은 ‘서로 살아간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윤리적인 의미는 앞으로 밝힐 것이다.

증산(甌山)이 가르친 상생이 이러한 뜻이므로 저 중국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서 말하는 상생과 자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들레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뚜렷하지 못하여 자칫 음양오행설의 안개 속으로 말려들어가는 일이 적지 않다. 본래 오행설(五行說)은 다섯 가지 원소(五行)를 가정하고 이로써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소박한 이론이었다. 이것이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음양설(음양설)을 끌어들여서 다섯 가지 요소들이 운동하는 곧 생성 변화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대체로 기원전 4세기 쯤에 추연(騶衍)과 그 제자들에 의하여 이러한 오행설이 마련되어 그 시대 및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추연이 처음으로 주장하여 정치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이 곧 오행의 상극설(相克說)이다.

오덕(五德)은 저마다 차례로 이길 수 없는 것을 맞이한다. 순(舜)의 왕조는 토(土)의 덕으로 다스렸고, 우(禹)의 왕조는 목(木)의 덕으로 다스렸고, 은나라(殷)는 금(金)의 덕으로 다스렸고, 주나라(周)는 화(火)의 덕으로 다스렸다.⁶⁾

이것은 추연의 저술이 단편으로서 전해져 오는 것들 가운데 한 토막이다. 여기서 오덕(五德)이란 오행(五行)을 말한다. 다섯가지 덕(행) 하나하나의 차례로 다른 덕(행)으로 옮겨감으로써 사라지고 만다. 이것은 오덕(행)을 차례로 운동하는 것으로서 본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런데 이것을 추연은 하나하나의 덕(행)은 차례로 “이길 수 없는 것에 따른다”(從所不勝)고 본다. 다

6) 五德, 從所不勝, 虞土, 夏木, 殷金, 周火: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 권77, 16 쪽 이하

시 말하면 하나의 덕(행)인 토(土)는 이길 수 없는 목(木)을 맞이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목(木)이 토(土)를 반드시 ‘이긴다’(克)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금(金)은 반드시 목을 이기고 화(火)는 반드시 금을 이기게 된다. 이것이 곧 오행설에 있어서의 ‘상극설’(相克說) 또는 ‘상승설’(相勝說)이다. 추연의 이러한 주장이 그 무렵의 정치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순의 왕조가 토(土)의 덕으로 그 이전의 왕조를 이겼고 우의 왕조가 목(木)의 덕으로 순의 왕주를 이겼고 은나라가 금의 덕으로 우의 왕조(곧 夏나라)를 이겼고 마침내 주나라가 화의 덕으로 은나라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것이 잘 증명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火)의 덕으로 이긴 주나라가 지금(전국시대) 바야흐로 무너져 가는데 수(水)의 덕을 갖춘 어떤 왕조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야릇한 불안 때문이었다.

어쩌면 미래에 대한 인간의 운명적인 불안이 오행의 상극설 같은 소박한 주장을 생각하여 냈는 지도 모른다. 이래서 증산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1989, 공사 제1장 3)라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라는 것은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설(相克說)에 의하여 설명되고 이해되었다는 것도 의미한다. 상극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극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고 시대가 바뀌면 그 지배한다는 원리도 바뀌게 된다. 사실 추연은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정치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통일된 정치질서를 갈망하고, 그가 기대하는 통일국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그의 상극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극설은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야 한다는 일종의 변혁이론이다.

그러나 통일국가를 이룩하고 안정된 사회질서가 다져져 가는 한대 초기에는 변혁이 아닌 지속적인 질서를 위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요구되었다. 이리하여 상극설에 대한 상생설(相生說)이 나타난다. 물론 상극설이나 상생설은 본디 우주론적인 사상이므로 그 사상적인 기반에 ‘천인의 합일’ 신앙 또는 ‘만물의 일체’ 사상이 깊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주론적인 발상이 그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어쨌든 오행의 상생설이 한대의 초기에 등장하여 한대의 유학(漢代儒學)과 결합하여 나가면서 더욱 더 중요한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서는 한나라 무제(武帝, 기원전 156 - 87) 때 활동한 동중서(董仲舒, 기원전 175(?) - 105(?))의 상생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주론적인 이론으로서 오행 상생설을 뚜렷이 내세운 것은 동중서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오행설이 ‘천인의 합일’(天人合一)의 사상을 증명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오행설은 유가의 철학사상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되었던 것이다.

천(天)에 오행이 있다. 제1은 목이라 하고, 제2는 화라 하고, 제3은 토라 하고, 제4는 금이라 하고, 제5는 수라 한다. 목은 오행의 운동의 처음이다. 수는 오행의 운동의 마지막이다. 토는 오행의 운동의 중간이다. 이것은 천(하늘)이 정한 차례다. 목은 화(불)를 생하고, 화는 토(흙 곧 재)를 생한다. 토는 금(쇠 곧 광석)을 생하고 금은 수(물)를 생하고 수는 목(나무)을 생한다. 이것은 부자(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나무는 왼쪽에 있고 금은 오른쪽에 있다. 화는 앞에 있고 수는 뒤에 있다. 그리고 토는 한가운데 있다. 이것은 부자(아버지와 아들)의 차례다. 이들 하나 하나는 다른 것으로부터 받는 데 이렇게 받는 관계는 차례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목은 수로부터 받고 화는 목으로부터 받는다. 토는 화로부터 받고 금은 토로부터 받고 수는 금으로부터 받는다. 이들은 모두 주는 것으로서는 부(아버지)다. 받는 것으로서는 다 자(아들)다. 자는 언제나 그 부에 의존하고 부는 그 자를 부린다. 이것이 바로 천(하늘)의 길이다. ... 7)

맨 먼저 “천에 오행이 있다”(天有五行)고 외친다. 이것은 동중서가 오행을 “하늘의 길”(天之道)이라고 본다는 것을 뜻한다. 이 하늘의 길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다. 하늘(天)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가 온갖 사물을 모두 포함한 ‘자연’(自然)을 뜻하고 다른 하나가 인격적인 최고 존재인 ‘하느님’(上帝로서의 天)을 뜻한다. 따라서 적어도 “하늘의 길”은 ‘자연의 원리’(天理)를 뜻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뜻’

7) 董仲舒, 『春秋繁露』 第42卷, 五行之義.

天有五行, 一曰木, 二曰火, 三曰土, 四曰金, 五曰水. 木五行之始也. 水五行之終也. 土五行之中也. 此其天次之序也.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此其父子也. 木居左, 金居右, 火居前, 水居後, 土居中央. 此其父子之序. 相受而布. 是故木受水, 而火受木. 土受火, 金受土, 水受金也. 諸授之者, 皆其父也. 受之者, 皆其子也. 常因其父, 以使其子, 天之道也.

(天意)을 뜻할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도 예나 마찬가지로 헛갈리기 쉽다. 동중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두가지 뜻을 다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행(五行)의 상생(相生)은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뜻(天意)이기도 하다. 이렇게 오행의 상생을 한편으로는 자연이 움직이는 법칙이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뜻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동중서는 거침없이 “목은 화(불)를 생하고 화는 토(흙 곧 재)를 생한다. 토는 금(쇠 곧 광석)을 생하고 금은 수(물)를 생하고 수는 목(나무)을 생한다. 이것은 부자(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말한다. 곧 나무가 물을 생하고 물은 재 곧 흙을 생하는 것같은 자연의 법칙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덕의 법칙)라고 말하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덕관계가 하느님의 뜻인데 하느님의 뜻 방향이 곧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행이 상생하는 법칙은 자연법칙인데 이것이 곧 하느님 뜻의 방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인 인간의 도덕법칙이 곧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하늘(자연)과 인간(하느님 뜻에 따르게 되어 있는 인간)을 하나로 보려는 동중서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이미 동중서 이후의 음양오행설 방향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원리와 하느님(上帝)의 뜻이 똑 같다고 봄으로써 차츰 하느님의 뜻을 밀어내고 자연법칙만을 보게 되어 인간의 도덕법칙을 자연법칙이라고 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음양오행설은 자연에 관한 이론으로서도 순수하지 못하고 인간·사회 현상도 자연현상과 혼동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음양오행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상생설도 많은 문제점을 품고 있다. 동중서의 상생설에 있어서는 오행의 순서가 “목, 화, 토, 금, 수”로 되었다. 그는 이 순서를 “이것은 천(하늘)이 정한 차례”라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 오행은 하나하나가 다음의 것을 생기게 한다. 곧 목이 화를 화는 토를 토는 금을 ... 생기에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오늘날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따지지 않기로 한다. 사실 그 당시에조차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들어본다. 불이 흙을 생한다고 할 때 물건이 탄 뒤에 남는 것은 재인데 이것을 곧 흙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쇠(금속)

가 물을 생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금속이 녹으면 액체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만 하다. 열에 녹아 물처럼 된 쇠를 물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여기서는 따지지 않기로 한다.

이와 같은 오행의 상생이 '해원 상생'이라고 할 때의 상생과 다르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오행 상생과 해원 상생에 있어서 그 '상생'(相生)이라는 것 자체는 같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해원 상생의 '상생'(相生)을 오행 상생의 상생으로써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정이므로 그 무척 다른 점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오행의 상생은 우주론적인 상생이다. 모든 사물들을 다섯 가지 요소 또는 이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다 같이 상생의 원리를 적용한다. 자연계에도 인간·사회·역사에도 분별없이 그 상생의 원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그 적용하는 기준이 일관된 것일 수 없어서 사람마다 때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해원 상생은 '해원' 곧 '원한을 푸는 것'과 관련된 상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간관계 곧 사회 또는 역사 영역에만 적용된다.

(2) 오행의 상생은 이를테면 일방적인 상생이다. 나무(목)는 물을 생하지만 물은 나무를 결코 생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불과 흙(土)의 관계도 일방적이다. 따라서 이 상생은 '서로 행한다'고 옮길 수 없다. 오히려 '차례차례로 생한다'고 옮겨야 한다. 곧 목(나무)·화(불)·토(흙)·금(쇠)·수(물)가 차례차례로 다음 것을 생한다는 뜻에서 상생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해원 상생에 있어서는 글자 그대로 서로 살려준다는 뜻이다. 같은 사람끼리 서로 살려준다는 상호관계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아주 동등한 처지에서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는 '평등과 자유의 일치'를 이상으로 삼는 상생이다. 이에 대하여 오행의 상생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상하질서'(上下秩序)를 이상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II. 해원 상생의 윤리적·종교적인 의미

선천(先天)에는 상극(相剋)의 원리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人事)가 도의(道義)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三界)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殺氣)가 터져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이제 천지 도수를 뜯어고치며 신도(神道)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써 선경(仙境)을 열고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세워 하염없는 다스림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화하여, 세상을 고치리라.⁸⁾

넓은 옛 시대에는 상극의 원리가 온인류의 인간관계를 지배하였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원한이 맺히고 쌓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원한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의 원수가 되어 온 인류는 무서운 불행과 재앙 속에서 허덕이고 신음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제 새 시대의 사회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껏 인간들 사이에 뿌리 깊이 맺히고 맺힌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하는 원리에 따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원 상생'의 이상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먼저 "상생의 도로써 선경을 연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道)를 '원리'로 볼 수 있다. 이 '상생의 원리'는 '상극의 원리'와 맞세워져 서로 양극을 이룬다. 상극의 원리가 넓은 시대(先天)의 삶의 원리인데 대하여 상생의 원리는 새 시대(後天)의 삶의 원리다. 이 상생의 원리에 의하여 신선과 같은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생의 원리란 과연 어떠한 삶의 방식일까? 이 해원을 전제하는 상생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 오행의 상생과는 매우 다르다. 오행의 상생은 목·화·토·금·수가 차례 차례로 다음 것을 생하는 것을 말한다. 목(나무)은 화(불)를 생하고 화는 토(흙)를 생하고 토는 금(쇠)을 생하고 이러한 상생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살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아들은 손자를 살리고 임금은 신하를 살리고 그 신하는 그 밑 신하를 살리고 여기에

8) 「대순전경」, 5판, 1960, 5장 4

는 상하질서(上下秩序)에 따르는 일방적인 상생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황제의 지배체제를 전제하는 상생설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 상극설과 마찬가지로 낡은 시대(先天)의 원리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해원에 의한 상생의 원리는 어디까지나 새 시대(後天)의 원리에 속한다. 이러한 상생이란 과연 어떠한 삶의 방식일까? 이것은 본디 해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해원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생을 먼저 밝히고 나아가 해원을 밝힌 뒤 다시 상생을 조명하여 보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생은 글자 그대로 '서로 살린다'는 뜻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수평관계'(水平關係)에서 살린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살리고 동시에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리는 참된 상호관계(相互關係)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이다. 독일 철학자 칸트(1724-1804)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이것을 세 단계로 배열하였다. 첫째 관계가 실체관계(實體關係)인데 이를테면 사람과 팔·다리·눈·귀 등의 관계다. 곧 물건과 거기에 속해있는 여러 성질들의 관계다. 둘째 관계가 인과관계인데 이를테면 큰비(호우)와 큰물(홍수)의 관계 또는 노력과 성공의 관계 같은 것이다. 저 한대(漢代)의 '오행 상생'은 곧 일종의 인과관계다. 셋째 관계가 상호관계인데 이를테면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 곧 두 물체가 서로 부딪치면 어느 쪽도 똑같은 힘을 쓰게 되는 관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상호관계에서는 이기는 쪽도 지는 쪽도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게 된다.

상호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체가 다른 실체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때, 그 두 실체 사이에 있는 인과관계다.⁹⁾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가 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곧 실체관계다. 이것은 하나의 실체(여러 요소를 갖춘 의정한 존재)와 그 부분과의 일방적인 관계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실체가 그와 다른 것에 대한 관계임에 틀림없다. 다음으로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와 불과의 관계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나무가 없으면 불을 피울

9) 칸트, 「순수이성비판」, 최재희역, 박영사, 1972. 116쪽, 번역은 필자가 원문에 따라 고쳤음

수 없다. 그러므로 오행 상생설에서는 무엇보다 맨 먼저 “나무는 불을 생한다”(木生火)라고 외치게 되었다. 사실 오행 상생설이라는 한대의 우주론적인 이론도 그들의 가까운 현실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나무(木)와 같은 하나의 실체가 불(火)과 같은 다른 실체와의 관계다. 그런데 이것도 나무 쪽에서만 일으킬 수 있는 일방적인 관계다. 그러나 하나의 실체가 다른 실체에 관계한다는 점에서는 한 단계 나아간 발전이다. 마침내 상호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실체와 다른 실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여기서 비로소 실체가 당당하게 서로 관계하게 된다. 이러한 세 단계를 칸트는 “셋째 단계는 첫째의 것과 둘째의 것이 결합(종합)됨으로써 생긴다”(위 책, 같은 쪽)고 설명하였다. 이 “결합”(die Verbindung)을 헤겔(1770-1831)의 변증법에 따라 가장 발전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칸트가 크나 큰 자신을 가지고 밝혀낸 세 단계의 관계 곧 실체관계·원인관계·상호관계를 저 중국의 역사단계에 적용하여 볼 수 있다. 저 은나라로부터 대체로 춘추시대 중기에 이르는 이른바 중국 청동기시대는 씨족공동체(氏族共同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는 실체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씨족공동체에 있어서는 하나의 공동체(실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는 마치 한 나무와 그 뿌리·가지·잎·사귀·꽃 등의 관계와 같기 때문이다. 그뒤 씨족공동체적인 사회가 무너져 가는 긴 역사과정이 이어졌다. 이것을 촉진한 것이 철기의 사용과 그 보급이었다. 드디어 진나라·한나라의 중국 통일국가 시대가 왔다. 이리하여 군현제도를 통한 중앙집권체제가 세워졌다. 이것은 상하지배(上下支配)의 관계로서 이를테면 맨 위에서부터 차례차례로 내리 지배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나타내면 아버지(황제)와 아들(신하) · 그 아들의 아들(그 신하의 신하) ... 의 인정어린 부자관계다. 황제는 신하를 자식처럼 돌봐 주고(살리고) 그 신하는 그 밑 신하를 자식처럼 돌봐주고(살리고) 이러한 사회는 인과관계에 속한다. 맨 위에서부터 차례차례로 살려주는 관계 곧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저 한나라 초기에 활동한 동중서가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주장하게 된 오행 상생설이 곧 일종의 인과설인데, 그는 결국 한나라의 황제 중심의 지배체제를 위한 사상적인 뒷받침을 한 셈이다.

이와 같이 씨족공동체적인 인간관계가 실체관계에 속하고 중앙집권적인 인간관계가 인과관계에 속한다면 실체관계와 인과관계는 낡은 시대(先天)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인간관계에 적용하였을 때만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 칸트 자신도 이들 관계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분류하였다. 그런데 그 실체관계와 인과관계가 씨족공동체적인 사회와 중앙집권적인 사회 속에 역사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칸트의 분류가 정당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류를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체관계와 인과관계의 종합(결합)이라고 하는 따라서 가장 발전된 단계라고 할 수 있는(이점은 헤겔이 변증법으로 발전시켰음) 상호관계는 과연 어떠한 인간관계로 나타나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새 시대(後天)의 인간관계를 생각하여 보는 범위 안에서 이른바 근대사회(近代社會)가 전제하는 인간관계와 연관시켜 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대체로 근대사회(인류역사의 발전단계에서 중세 봉건사회와 구별되는 역사단계에 있는 사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인간관계가 바로 상호관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사회가 원칙적으로 바라는 인간관계는 저 프랑스혁명 초기에 외쳐진 『인권선언』(1789) 제1조에 나타난 자유와 평등일 것이다. 이 자유와 평등의 문제도 현실적으로는 갖가지 문제를 품고 있다. 그러나 인류사회가 갖가지 보안을 통하여 꾸준히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1948년 12월에 온 세계를 향해 외쳐진 『세계인권선언』 제1조와 제2조에서도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권리로서 규정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잘 증명하여 준다.

대체로 근대사회를 새 시대(후천)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새 시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인간관계가 자유와 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자유와 평등이 과연 어떠한 인간관계일까?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상호관계에 속하는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해원 상생'의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자유와 평등이 도덕적인 인간관계로서 인간세계에 보편적으로 통하는 도덕적인 선(善) 자체라는 것을 칸트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칸트는 자유와 평등이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를 “목적의 왕국”(ein Reich der Zwecke)이라고 불렀다.

나는 왕국이란 서로 다른 이성적인 존재들이 공동의 법칙에 의하여 짜여져 있는 체계적인 결합체라고 이해한다.¹⁰⁾

이렇게 목적의 왕국은 공동의 법칙(gemeinschaftliche Gesetze)에 의하여 성립된 나라로서 그 공동의 법칙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가장 이상적인 왕국이다. 원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임금의 명령이 나라 구석구석에 스며 들어 있는 강력한 나라를 말한다. 목적의 왕국도 “공동의 법칙”이 그 나라 구석구석에 스며 들어 있는 아주 완전한 나라다. 그 공동의 법칙들은 모두 도덕법칙(道德法則)에 속하는 것들이므로 목적의 왕국은 어디까지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다. 그 공동의 법칙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있다고 한다.

이성적인 존재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이성적인 존재를 결코 한갓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 자체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법칙 밑에 있다.¹¹⁾

이와 같이 목적의 왕국에서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한갓 수단으로서만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곧 자기를 위하여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그쳐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남을 수단으로서 다루는 경우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 자체”(Zweck ansich)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 자체는 이성적인 존재(도덕적인 인간)가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의 상태인 ‘인격’을 말한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도덕법칙(결국 인간의 순수한 양심이 가리키는 길)에 따른 때의 인간’ 곧 인격을 “목적 자체”(절대적인 목적)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목적 자체로서의 인격만이 “존엄성”(die Wuerd, 위의 책, 228쪽)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목적의 왕국에서 다른 사람을 목적 자체로서 다룬다는 것은 남을 존엄성을 갖춘 인격으로서 정말 존경하라는 것을 뜻한다. 본래 목적의

10) 칸트, 『실천이성비판』 최재희 역, 박영사, 1997, 226쪽

11) 위 책, 227쪽

왕국은 이러한 도덕적인 인격들로 구성된 이상적인 나라다. 그러므로 이쪽이 저쪽을 그렇게 존경하면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인격으로서 정말 존경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칸트는 목적과 수단의 상호관계로써 잘 밝혀 준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공통의 객관적인 법칙에 의한 이성적인 존재들의 체계적인 결합 곧 하나의 왕국이 생겨난다. 이들 법칙이 바로 이들 이성적인 존재가 서로 목적과 수단으로서 관계하는 것을 의도하기 때문에 이 왕국은 목적의 왕국(물론 그저 하나의 이상이지만)이라고 부를 수 있다.¹²⁾

목적의 왕국을 성립시키는 “공통의 객관적인 법칙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도덕법칙에 속하여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들 법칙의 의도느냐 어디까지나 양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성적인 존재들)이 “서로 목적과 수단으로서(als Zwecke und Mittel) 관계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의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서로 목적인 동시에 수단이 되는 참된 상호 상호관계속에서 산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 사람의 노력은 자기와 다른 모든 사람의 도덕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참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곧 참된 의무 의식에 의한 노력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노력은 결국 나의 목적을 실현하는 참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서로서로 “목적과 수단으로서” 아주 평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참된 의무 의식에 따라 노력한다는 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서로서로 “목적과 수단으로서” 아주 자유스러운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저마다의 노력이 자기와 다른 모든 사람의 목적을 위한 참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 의식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존재는 목적의 왕국에 성원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이것은 그 이성적인 존재가 그 왕국에서 보편적으로 법칙을 만들기는 하지만 또 그는 이들 법칙에 복종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성적인 존재는 목적의 왕국에 임금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이것은 그가 법칙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의지에도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¹³⁾

12) 위 책. 227쪽

바로 앞에서 목적의 왕국에서의 인간관계를 목적과 수단의 상호관계로서 조명하였다. 여기서는 다시 그 인간관계를 임금과 백성의 완전한 상호관계로서 인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저마다의 이성적인 존재는 왕국을 구성하는 “성원”(Glieder) 곧 백성의 자격으로서 왕국에 참여한다. 이 나라에서는 민주체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성적인 존재인 백성이 “보편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데 관여한다. 이렇게 법률을 “보편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원수(元首) 곧 임금님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법률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그 자신이 잘 복종한다. 아니 자기가 만든 법이기에 오히려 자기가 기꺼이 복종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는 백성의 자격으로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는 “임금의 자격으로” 왕국에 참여한다. 그는 “보편적으로” 법을 만들기에 그가 법에 복종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적의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백성인 동시에 임금이고 임금인 동시에 백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목적의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목적인 동시에 수단이고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목적의 자격이 곧 임금의 자격이 곧 임금의 자격이고 수단의 자격이 곧 백성의 자격이기 때문이다.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흥포된 바이니라.¹⁴⁾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이 뜻이 “이미 세상에 흥포된 바이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온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상생의 도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세계의 창생을 건질 수 있는 “상생의 도”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 실마리를 무엇보다도 오늘의 온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우선 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13) 위 책, 227쪽

14) 『전경』 예시 6절, 312쪽

Rights)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것은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모든 민중과 모든 국가들이 달성해야 할 기준으로서 선언되었다. 그 제1조와 제2조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온 인권선언의 기본 정신으로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로 “상생의 도”는 저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서 “이미 세상에 홍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자유와 평등’의 이상으로서 목적의 왕국을 살펴보았다. 이 왕국에서 모든 사람이 임금인 동시에 백성이고 백성인 동시에 임금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가 참된 상호관계 곧 “회원 신생”의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이 해원상생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원”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인류의 기록이 시작이고 원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에 빠져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¹⁵⁾

아득한 옛날 저 중국을 다스렸다고 하는 아주 어지신 요임금이 그의 아들 단주에게 천하를 전하여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 아들이 어지지 못하여(불초하여) 천하를 다스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¹⁶⁾ 그래서 요임금은 온 천하를 한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순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 두 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순에게 시집보내 순의 인품을 알아보기로 하였다.¹⁷⁾ 마침내 업적이 놀랍고 효성이 지극한 순에게 온 천하를 전해주었다.¹⁸⁾ 이렇게 되자

15) 『전경』 공사 3장 4절, 130쪽

16) 단주는 아버지(요임금)처럼 어지지 못하였고 순임금의 아들(商均)도 아버지처럼 어지지 못하였다.(『맹자』 만장장구 상)

17) 임금(요임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 순이라는 사람)을 시험해 보고 싶다. 그에게 (두 딸 娥皇과 女英)을 시집보내 그가 두 딸에 모범을 보이느냐를 살펴볼 것이다.” 이리하여 두 딸을 잘 타일러서 규(媯)라는 물의 굽이(순이 살고 있는 곳)에 시집보내 순의 부인이 되게 하였다.(『서경』 요전)

18) 순은 태어난 지 30이 되어 (요임금에게) 등용되었다. 그 뒤 20년이 되어 (요임금이 돌아간 뒤에) 임금자리에 오르게 된 지도 50년이 되었다. 마침 각지를 보살피며 돌아다니다가 세상을 떠났다(나이 100살). (『서경』 요전 끝쪽)

요임금의 아들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에서 돌아가게 하였고 두 왕비를 소상강에 빠져 죽게”하였다는 것이다.¹⁹⁾ 여기서는 단주가 원을 품었기 때문에 순임금이 창오에서 돌아가게 되었고 두 왕비가 소상강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학적인 해석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종의 이념적인 역사관(歷史觀) 혹은 종교적인 역사해석(歷史解析)이라고 볼 수 있다. 본디 중국 역사가들에게는 ‘단주의 원한’이라는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전경』에 나타나 있는 ‘단주의 원한’이라는 관념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본디 요임금이니 그 아들 단주니 하는 것 자체가 신화적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단주의 원한”은 낡은 시대(先天)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독자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저 이상적인 임금이라고 그렇게 찬양하여 온 ‘요순시적’을 깊이 이해하고 보면 “원한”을 근거로 하는 사회체제다. 거기에는 하늘 같이 우러러보아야 하는 임금이 만인의 위에 있다. 거기에는 그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을 특권을 이어받지 못한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임금을 정점으로 하는 상하지배체제에는 크고 작은 갖가지 특권을 이어받지 못한 갖가지 원한들이 줄줄이 따르기 마련이다. 요컨대 이것은 결국 “상극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다.

이에 대하여 새 시대(後天)의 원리는 “해원 상생”인 데 이것은 일방적인 지배관계와는 대조적인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참된 ‘상호관계’다. 서로 욕구불만을 풀어주고 서로서로 살려주는 상생의 인간관계를 좀 더 새롭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 근대사회의 자유 평등의 이상을 이론화한 “목적의 왕국”이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19) (순은) 나이 61에 요임금을 이어받아 임금자리에 올랐다. 그 뒤 39년이 되어 마침 남쪽 각지를 보살피며 돌아다니다가 창오의 들(蒼梧之野)에서 돌아갔다. (『사기』 五帝本紀)

순이 여러 지방을 두루 보살피며 돌아다니다가 창오에서 돌아갔다.(이를 슬퍼하던) 그 두 왕비는 양자강과 상수(湘水) 사이(江湘之間)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두 왕비를 상군(湘君)이라고 한다. (劉向, 『烈女傳』, 一卷, 有?二妃傳)